

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30% 신혼부부·대학생 등에 공급 공공택지 임대주택 확대도 건의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 전환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도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준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000 가구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 7000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

연도별 공급 물량은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000 가구, 2020년 5만 1000 가구, 2021년 4만4000 가구, 2022년 3만2000 가구이다.

특히 도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천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000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도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7700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

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밖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강력한 라인업으로 돌아온 '천년에 페스티벌'

보해양조, 지난 6월 이어 내달 7일 개최

지난 6월 무더위 속에서도 1만여 명이 모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던 천년에 페스티벌이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돌아온다.

천년에 두 번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사이렌'으로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미, '그날처럼'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장덕철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중독성 있는 후렴구 '아메리카노'로 이름을 알린 10cm, 실력과 그룹 스피카 출신 김보형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미디언 이국주와 이상준이 함께하는 토크쇼도 마련된다. tvN 코미디빅리그 인기코너였던 '오지라퍼'에 출연했던 두 사람은 학업과 취업 걱정에 연애도 하기 어려운 청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SNS에서 누리꾼들은 소주에서 소주맛을 잡은 천년애가 부드러운 소주라고 평가하며 첫 만남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첫연애, 천년에 페스티벌'이란 이름은 '천년을 통해 첫연애를 성공하기 바란다'는 뜻을 담았다.

축제는 천년을 마시거나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천년에



축제를 촬영해 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무대 바로 앞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벤트존도 마련됐다. 이벤트존은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SNS사전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천년애를 마시는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첫연애', '천년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은 무대 바로 앞 자리에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다. 10월 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월 3일 SNS로 개별 통보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천년애가 20~30대 사이에서 '첫 만남에 마시기 좋은 부드러운 술'이라는 언급이 많아 축제 이름을 '첫연애, 천년에 페스티벌'로 짓게 됐다"며 "사전 이벤트에 매일 수백명씩 참여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최상의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는 지난 6월 마마무, 김연자, 김구봉, 뽀 등 인기가수를 초청해 천년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당초 3000명으로 예상했던 참가인원은 1만 명이 모이면서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인파가 모였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목포에서 즐기는 '신명나는 파시 한 판'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내달 5일부터 목포항구축제 열려 낭만열차·체험부스 등 알차게 마련

목포항구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 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파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으로 다도해의 모항이자 청정해역인 서남해안 수산물의 집산지인 목포항에서도 열렸다.

시는 항구축제의 킬러콘텐츠로 활용해온 파시를 올해는 더욱 새롭고 다채롭게 진행한다. 특히 항구축제 최초로 심상한 활어를 경매하고, 경매로 구입한 생선을 파시 수룻간의 회터와 구이터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상에 정박된 전통한선에서 참조기와 먹갈치 등 제철 수산물을 경매하는 '선상 파시경매'가 열리고, 파시무대에서는 청년어부들로 구성된 목포선어생선자협동조합 '어생'이 매일 5회 '어생그랜드세일'을 통해 심상한 생선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밖에 함께 목포수협과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김장에 사용하는 추젓을 판매하는 등 파시는 수산물로 만끽할



수 있는 재미를 풍성하게 선사한다. 파시 이외의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삼학도 입구는 더욱 새로워진 물고기 등 터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목포항 낭만열차, 낭만 정원카페 등이 진행돼 중장년은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이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체험부스는 기존과 차별화에 힘써 청춘창업 1897, 드론 축구, 3D프린터, 그림자 극장, 장갑인형극, 평창올림픽 로보트물고기, 맨손물고기잡기, 도깨비의 목화 등 신기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축제에 흥을 고조시킬 공연으로는

시민열창대회인 '나는 가수다', 서남권 청소년 드림하이 콘서트, 다문화가족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시민이 주인공 무대와 개막식 '목포항 파시 음악회'와 폐막식 '바다콘서트' 등 전문가 수들이 펼치는 무대가 있다. '목포항 파시 음악회'에는 문희옥, 류기진, 서정아 등 트로트 가수들이, '바다콘서트'에는 김현정, 울랄라세션, 거미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맛과 멋, 낭만으로 가득찬 목포항구축제는 신명나는 파시 한 판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목포시, 추석맞이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목포시가 추석을 맞아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호남, 중앙, 버스전용, 원형1·2, 동아, 남교, 남교가변차로, 행정타운 등 9개 유료주차장(601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공공시설인 실내체육관(160면), 유달경기장(115면) 등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고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연휴 동안 특별 상황 근무조를 편성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여객선터미널과 북항, 목포역, 버스터미널 주변을 비롯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 주차차에 대해서는 주요구간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순찰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광주 남구, 폭우 피해업체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지원

집중호우 침수 피해 상가·업체 대상

광주 남구는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상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준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특례보증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되나,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이다"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침수 피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여건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급하게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남구청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7억5000만원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또는 광주 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남구=봉채영 기자